

[벽소설]

그 그녀의 상책



성철이는 이제 불과 두해후면 신살 고개에 올라선다. 아직 40대 후반인 셈이다. 그런데 건강관리에 문제가 있는 탓인지 아니면 유전인지 그 몸살 당뇨병종합증으로 발가락이 시꺼멓게 썩어들어간다. 밤새까지 지독하다. 성철이는 긴 한숨을 힘겹게 후유 ~ 하고 내쉰다. 당뇨병으로 허벅지까지 잘라버리고 고통스럽게 살다 간 아버지의 안타까운 모습이 자꾸 떠오른다.

안해가 외국에 돈벌이 간 후 시종 돌아오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리혼을 제기해 우리 사랑의 무게가 이껏뿐이었더니 하고 분김에 리혼했다. 리혼하고 홀로 칠팔년을 살다가 친구의 소개로 고씨 성의 그녀를 만났는데 그녀가 마음 착하고 털면 먼저 밖에 없는 자기를 극진히 보살피기에 몇달간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다. 그런데 병이 갈수록 심해져 발가락이 마비되면서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자 성철이는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다. 이대로 그냥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가 왜선지 못 얻을 것을 얻은 도적놈처럼 파렴치해보였다. 그래서 간다 온다 소리도 없이 어느 날 슬며시 집에서 뛰쳐나와 세집을 맡고 혼자 숨어살고 있었다.

아마 그녀는 갑작스레 사라진 성철이를 찾느라고 헤매는 것이었다. 아마 그럴 것이었다. 찾다가 좀처럼 못하면 손을 놓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차차 잊게 하는 것이 성철이가 사랑하는 그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위안이고 최선의 상책이라고 생각했다.

성철이는 정말로 앓는 자기 때문에 그녀에게 부담을 주기 싫었다. 얼마 따라 외국 간 딸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다. 여유있게 보낼리 만무한 딸도 알면 다 부담거리라고 생각했다.

갑자기 누군가 집문을 두드린다. 혹시 그녀가 찾아왔나 귀를 강구어도 문만 두드러지 아무 소리가 없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급하고 초조하다. 심중

팔구는 그녀였다. 목소리를 내면 자기인 줄 알기봐 잠자코 있으니 문 두드리는 소리가 더 급하고 초조해진다. 한참 지나도 집안에서 별 반응이 없으니 어디론가 핸드폰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빨리 와서 문 열어줘요...”

“아, 이제 문이 열리면 나는 너는 숨을 곳조차 없다.”

성철이는 여러모로 생각을 굴리다 너는 모르쇠를 내지 못하고 절뚝거리면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문밖에서 자취소리를 듣자 그녀 역시 한껏 신경을 곤두세우고 서있었다. 열린 문으로 나타난 성철이를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눈에는 반가운 눈물과 함께 안타까움이 물결쳤다. 열린 집안으로 부터 흘러나오는 악취가 심했다. 그녀는 성철이의 시꺼멓게 죽어가는 왼쪽 다섯 발가락에 시선을 던지었다. 함께 있을 때도 발가락이 마비되어 힘들어하는 성철이의 모습을 늘 보아왔기 때문이다.

“나쁜 사람!”

그녀는 낮은 소리로 욕하면서 성철이의 목에 매달리었다.

“왜 떠나요? 발가락이 다 썩어들어 가면서 어디까지 뛰려구 이런 못난 짓

을 해요?”

성철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꼭 말을 해주어야 하였다.

그녀는 악취 풍기는 집에 들어와 창문을 몽땅 열어놓았다. 그리고 성철이와 마주앉아서 눈물을 흘랑흘랑 떨었다.

“당장 병원으로 가세요. 치료비는 제가 집을 팔아서라도 대겠어요.”

성철이는 코마루가 쟁해나면서 눈물이 활짝 쏟아졌다.

“나같이 폐물인 사람이 살아갈 필요가 없소. 우리 아버지도 다리가 다 썩어 허벅지까지 절단하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돌아갔소. 나는 아버지의 길을 걷지 않을 것이요. 내가 왜 만난 지 서너달 밖에 안되는 동무에게 이 희망없는 몸을 맡기고 럽치없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겠소. 그러니 어서 돌아가 주시오.”

성철이는 그녀에게 눈물을 보이기 싫어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호주머니에서 고개 종이를 꺼내서 외면하고 있는 성철의 얼굴을 둘러더니 찬찬히 눈물을 닦아주었다.

“나하고 그냥 사는가, 안 사는가 하는 것은 두고 볼 일이지요. 옷깃을 스쳐도 인연이라 했는데 서너달 동안이나 거래하고 있던 동무를 만나 사랑을

느꼈고 정이 들었는데 썩어드는 발가락을 보면서 나 몰라라 피할 순 없었어요.”

“가오, 당장 가오. 나에게 마음도, 돈도 더는 투자할 가치가 없소.”

“그렇게 하죠. 내가 동무를 치료해 주면서 든 돈은 그때 가서 저에게 갚으세요. 그러나 지금은 제 말을 듣고 먼저 병원으로 가세요.”

성철이는 그냥 고개를 돌리었다. 솔직히 누군가 하루하루 스러져가는 자기를 보살피주고 또 생의 희망을 북돋아주었으면 하고 얼마나 꿈에도 간절히 바라고 또 울부짖어왔던가?! 이제 겨우 한창나이인 40대 후반인데...

그녀는 말없이 일어나 밖에 나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자친구를 끝내 찾았어. 지금 차를 몰고 여기로 와줘. 발가락이 다 썩어들어가고 있구나. 병원으로 가야겠어. 좀 태워줘.”

“에구 - 야, 너 호박 쓰고 돼지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썩어들어가는 다리를 살리자면 돈을 얼마나 팔아야 하는데? 그 남자도 너에게 부담주기 싫어서 자꾸 너를 피하는 것 같은데 이 기회에 나 몰라라 헤어지는 것이 더 상책이지 않을까?! 정식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상책이던 망책이던 내 마음은 이미 결정됐어. 앓는 남자친구를 나 몰라라 외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 더없이 착한 그이를 구해내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이고 현재로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상책이야.”

“넌 정말 바보야. 정 그렇다면 별수 없지. 내가 달려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

전화기 저편으로 도무지 리해할 수 없다는 친구의 가벼운 한탄소리 같은 체념이 들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히려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해지는 그런 묘한 안도감 같은 감정이 가득 차오름을 어쩔 수 없었다.

[시조]

리봉옥

항아리 (외 5수)

입 크고 허리 굵어
불 것 없는 품모이

보따리

엄마의 등 하나로
여러 자식 키웠네

조용히 홀로 서서
가는 세월 지켜보며

엄마가 키운 자식
걱정은 한보따리

우리 집
화목한 얘기
차곡차곡 담아라

한마디
원망도 없이
모든 정을 바쳤네

지계

다듬이소리

아빠의 친구였지
어디 가나 업고 다녀

도닥도닥 뚝뚝
방망이 노래소리

뒤등에 얹혀보니
땀 냄새가 푹 들었네

내 가슴 다듬이
옛 추억 살아나네

온 가정
행복 폭 담아
활짝 피는 웃음꽃

자상한
엄마의 웃음
떠오르네 삼삼히

초가집

편지

농립도 둘러쓰고
버섯된 나의 부친

기쁨도 날라주고
슬픔도 전해주고

찬바람 몰아쳐도
아랑곳하지 않네

사랑도 배달하고
향수도 맛을 주고

한가정
따스한 정을
가슴깊이 지키네

조그마한
봉투 속에는
인간정감 담겼다

같은데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비가 내리면 바로 내려와야 합니다.”

어쩐지 이 길을 걸어본 것 같았다. 소학교 때 친구들과 같이 산천어 낚시 하러 왔던 곳이 아닐까 생각되었다. 좀더 올라가니 초막집이 보였는데 확실한 산천어 낚시를 하고 하루밤 묵고 갔던 초막집이었다. 아버지는 이 골목을 따라 빨리 올라가자고 재촉하였다. 산이 딱 막힌 데다 날씨가 흐려 좀 어두웠다. 아버지는 깊은 산속에 들어설 때에는 산꼭대기를 향해 “어이-어이-” 하고 높은 소리로 웨쳐야 한다면 소리 길게 빼는 것이었다. “왜요?” 하고 물었다니 동물들이 이 소리에 도망간다고 했다. 한동안 걷다가 추억을 더듬어 이전에 낚시하던 곳이 자리잡고 낚시를 던졌다.

“야! 걸렸다, 산천어!” 아버지의 기뻐하는 소리에 다가가 보니 한뼉 넘는 산천어였다. 나도 아버지 옆에 낚시를 던졌다. 미끼를 던지기 바쁘게 산천어를 낚아챘다. 이렇게 올라가면 서 물이 잔잔한 곳을 만나기만 하면 대어사탕마냥 낚아내곤 하였다. 낚시에 정신 팔리다 보니 어두워지는 것도 몰랐다.

비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때야 초막집 주인이 비가 내리면 바로 내려와야 한다던 말이 떠올랐다. “빨리 가자. 폭우가 쏟아지면 강물이 위험하다. 이 비닐을 몸에 감싸겨라. 그리고 다래끼 웃면을 쪽으로 막아라. 물고기가 안 떨어지게.”

당금 내릴 비가 아니라면 한때를 짊어질 수 있겠는데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헐떡거리면서 한참 달렸는데 천둥번개에 장대같은 비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골물이 우렁찬 소리를 냈다. 무시무시한 소리에 가슴이 떨려 어찌나 빨리 달렸는지 반시간도 안되어 강가까지 도착했다.

소낙비는 멎었다. 그 사이에 골물들이 합쳐져 혼탁한 파도가 굽어졌다. 아버지는 강물이 더 불어나기 전에 건

너야 한다면서 나의 손을 꼭 잡고 한발 한발 나갔다. 밀려오는 물살을 두 다리로 막으며 나한테 오는 물살을 최대한 약화시켜주었다. 이끼가 가득한 돌을 밟으며 걷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거의 건너갈 때였다. 그만 발을 헛디뎠던 순간 아버지가 나의 손을 힘있게 잡아당겨 위험에서 벗어났다. 그래도 집에서 기다리는 어머니와 누이, 동생들을 위해 산천어가 들어있는 다래끼만은 끝까지 놓지 않았다.

그날 저녁, 우리 집 식구들은 산천어국을 끓여놓고 밥상에 마주앉았다. 어머니는 “오늘 고생 많았구나. 네 아버지가 산천어 낚시를 다니다가 이렇게 많이 낚아오기는 처음이다. 참 맛 있구나. 어서 많이 먹어라.” 하고 누이도 “산천어는 뼈도 가늘고 별맛이네. 돌이 딱 하나 죽어도 모르겠네.” 라고 말하는 바람에 온 집안에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다.

세월의 흐름은 화살과 같다더니 아버지와 함께 산천어 낚시를 하던 때가 어언 50년 전 일이 되었다. 그때 아버지께서 낚시질하는 내 인내성에서 희망을 보아내고 나를 도시 학교로 보내 주었기에 내가 공부에서 성공할 수 있었고 훌륭한 사업도 하게 되었다는 데서 늘 고마운 생각이 든다.



《결림신문》 부간에 수기, 수필, 벽소설, 칼럼, 시 등 원고들을 투고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원고 접수 메일: 2517440538 @qq.com

[수필]

잊지 못할 산천어 낚시질

김에 큰소리가 나도 몰래 나갔다. 두 조로 갈라졌던 친구들이 우르르 모여 들었다. 이때 경험 많은 친구가 “야, 장롱아, 물고기 눈이 멀었는가 봐라. 낚시질이 처음인 너에게 걸렸잖니? 물고기 눈을 잘 봐라.” 하는 우스개소리에 친구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경험 많은 친구는 “자, 지금부터 산천어가 있으니 제발 소리치지 말자!” 하고 또 지시를 내렸다.

나는 처음 해보는 낚시에 걸려든 산천어를 꺼내두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등쪽과 옆구리에는 청색으로 된 얼룩 무늬가 있었고 또 옆구리에는 빨간 고추가루가 묻은 것처럼 밝고 빨간 점들이 많았는데 정말 예뻐했다. 어른들이 하던 낚시와 달랐다. “산천어는 골물에서 자라는 고기중에서 제일 예쁘고 맛있는 물고기이다. 산천어국을 끓여놓으면 돌이 딱 하나 죽어도 모르지...” 저녁에 산천어국을 먹을 일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목젓이 방아를 쪼았다.

나는 다시 낚시대와 들고 앞에서 낚시질을 하는 경험 많은 친구의 뒤를 따랐다. 올라가면서 웅덩이에 물이 고인 곳이 있거니와 하면 지렁이를 낚 낚시를 물에 던졌다. 또 한마리 낚았다. 매 웅덩이에서 몇마리씩 낚았다. 이렇게 천천히 한 1시간가량 올라가면서 낚시질을 해보았는데 세어보니 18마리였다. 다른 친구들도 나 만큼 낚았으리라고 생각하고 득의양양해서 물어보았더니 경험 많은 친구는 40여 마리나 낚았고 기타 두 친구 역시 30여마리씩이나 낚았다고 하였다. 내가 친구들의 다래끼에서 풀떡거리는 산천어들을 번갈아보면서 “야, 참 맛들 어진데! 너희들 모두 낚시군인데.”라

고 흥분조로 말했더니 다른 조의 한 친구가 “산천어 낚시질은 재간이 따로 없다. 입질이 없으면 바로 장소를 옮겨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 말을 들은 나는 “아, 내가 너희들이 다 낚은 뒤만 꾸물꾸물 따라다니다 보니 적게 낚았구나. 나는 이만큼 낚아도 만족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말을 주고받다가 경험 많은 친구가 “인제 더 올라가도 고기가 없으니 초막으로 내려가 산천어를 끓여먹자.”라고 지시를 내렸다. 우리 넷은 너무 기뻐 흥얼흥얼 코노래를 부르며 초막으로 향했다.

먼저 물을 끓이다가 빨간 고추장을 풀어 산천어를 넣었다. 한 20분가량 발림발림 끓을 때 찜통뚜껑을 열었다. 그런데 물고기국에 향을 두는 ‘내기’가 없어 어찌하느냐고 물었더니 경험 많은 친구는 술가마 앞쪽에 쑥대처럼 키높이 자란 ‘박하’라는 풀을 툇툇 뜯어 가마에 넣으면서 내기보다 더 맛을 돋운다는 것이었다. 향기로운 산천어국 냄새가 온 골안을 푹 채웠는데 평생 잊지 못할 맛이였다.

그후부터 많은 사람들이 물 깊은 곳에 남포질을 하거나 생석회 혹은 농약을 치고 고기를 잡는 바람에 물고기가 멸종되다 싶이 하였다.

그로부터 몇년이 지난 여름방학 아침이었다. 아버지께서 만풍구로 낚시하러 가자고 했다.

“지금 약질을 너무 해서 물고기가 없다고 하던데 잡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골안으로 낚시하러 다니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한번 시험 삼아 가보자꾸나. 혹시 있겠는지?”

나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아버

신창용